

수면이라는 통로를 지나 꿈으로 진입하는 몸 은 뇌와 신경 작용에 온전히 그 흐름을 맡긴다. 내던진다. 꿈은 몸을 삼킨다. 의식 세계에서 단 한 순간도 능동성을 잃을 수 없었던 인간은 꿈에서 드디어 몸을 상실한다. 몸을 제거하는 일에 동의하며 꿈으로 진입한다.

기억할 것은 잠을 지는 동안 결정된다.  
기억하지 않을 것은 잠을 자는 동안 결정된다.

진입로: 완전히 이완된 몸으로, 신경작용의 무차별한 침투에 오롯이 열린 몸으로. 몸과 닿은 그곳에 중력의 힘만큼 기대요. 중력의 끌어당김을 허용하는 동공과 혀 뿌리, 뼈와 살 사이를 흐르는 호흡도 중력에 맡긴다. 아  
니, 몸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으로의 진입은 위험하다.이 위협에 맞서 아주 작은 궤방을 만듭시다. 중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팔을, 오금을 이동시키세요. 아주 미세한 힘을 생성하여.

중력에 반대하며 능동의 몸을 지켜내기를.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정은 잠을 자지 않으면 사라진다.

